

폭우가 삼켜버린 동남아...사망자 1000명 육박

인니 442명·태국 170명·스리랑카 334명...실종자도 수백 명씩
기후변화로 태풍과 열대성 폭풍 잦아지고 강도 세져 피해 확대

최근 1주일 사이에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망자가 1000명 가까이 발생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이날까지 442명이 숨지고 40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까지 30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100명 가까이 추가됐다. 이날 현재 부상자 수는 646명으로 집계됐다.

북수마트라주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고, 서수마트라주와 아체주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3개 주에서 29만7000명이 홍수로 집을 잃었고, 이들 중 일부는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특히 서수마트라주 아잠 지역 3개 마을에서는 80명이 매몰돼 여전히 실종 상태다.

아잠에 있는 살라레 아이아 마을에서는 매몰된 주택에서 시신이 수습될 때마다 유가족의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도로와 다리가 끊긴 아체주에서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구조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 통신은 군인과 경찰관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삽이나 곡괭이로 잔해를 파헤쳤다고 보도했다.

수마트라섬 일부 주민은 음식과 물을 옮기기 위해 상점에 침입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부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수도 자카르타에서 군함을 파견했다.

수하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많은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만7000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고, 이 기간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최근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 남부에도 홍수가 발생해 8개 주에서 170명이 숨졌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가까운 남부 송클라주에서만 131명이 사망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빗물에 잠긴 상태여서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태국 당국은 전체 홍수 피해 지역의 80%가량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침수 지역에서 잔해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차량을 수거하고 있으며 실종자도 계속 찾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에서 110만명가량이, 태국에서 300만명가량이 피해를 당했다고 추산했다.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최근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명이 숨지고 최소 370명이 실종됐다고 신화 통신이 스리랑카 당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재해로 총 30만9000가구, 110만여명이 피해를 봤다.

스리랑카 당국은 전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이웃국인 인도가 가장 먼저 헬기 2대를 비롯해 구조대원 22명과 구호 물품 등을 지원했다.

최근 동남아에서는 잦은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물리가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최근 1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마저 세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수 덮친 인도네시아 아체주. /연합뉴스

미·우크라, 종전 협의 시작...우크라 주권·번영 주목

제네바 회동 일주일 만에 재개...19개 조항으로 간소화·안전보장 집중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의 헬렌데일 비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고위급 회동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을 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회동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윌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텐 우메로우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다.

루비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날 협상에 대해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되고,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고, 국민의 엄청난 번영을 창조하는 메커니즘과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가를 재건하는 것뿐 아니라 놀라운 경제 진전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경제 잠재력과 진정한 번영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지녔다"며 "이 전쟁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지만, 종전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평화협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길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메로우 서기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측과의 협상 시작을 알리면서 "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익을 수호하고 실질적 대화를 보장하며, 제네바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지침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회동에서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은 기존의 28개 조항의 종전안을 협의, 이를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19개 조항으로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는 특히 윌트코프 특사가 내주 모스크바로 떠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기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양측이 더욱 확실한 안전보장 방안 등 우크라이나의 이익이 좀 더 반영된 쪽으로 합의 및 종전안 수정을 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미 의회, 베네수엘라 마약선 생존자 사살 조사 착수

국제법 위반 논란...상·하원 군사위, 국방부 자료 제출 요구

미국 의회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른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생존자 사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

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는 이미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며 상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의회 내부에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원사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뒤 두 번째 공격을 통해 생존자 2명을 제거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회에서 카리브해의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400년 만에 발견 루벤스 작품 50억원에 낙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파리 저택 매각과정서 확인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한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 유로(약 50억원)에 낙찰됐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르사유의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05.5×72.5cm·사진)가 290만 유로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1613년 그린 것으로,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해 9월 파리 6구에 있는 한 저택의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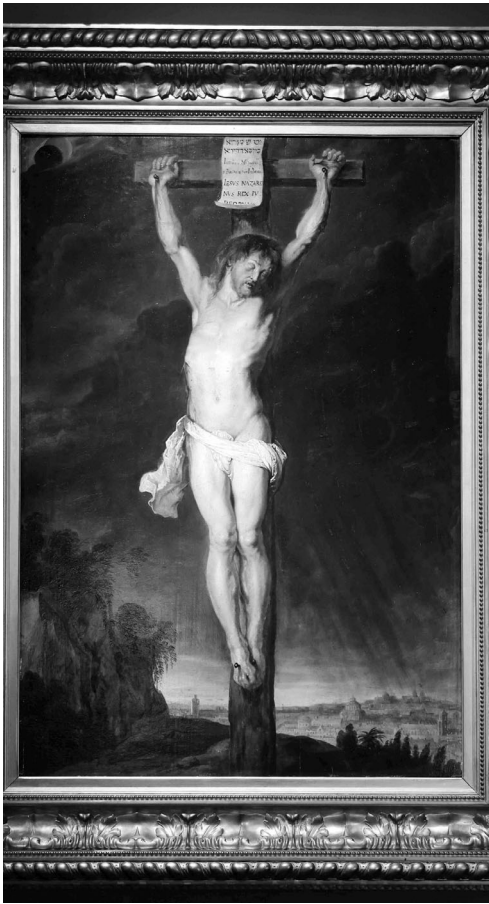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엄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그의 작업실 저택에서 이 작품을 발견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프랑스에 들어왔는지는 알 길이 없다.

루벤스 연구기관을 통해 진품 인증을 받은 뒤 이날 경매에 출품됐다.

작품을 발견한 오스나 경매사의 대표 장피에르 오스나는 앞서 르파리지앵에 "바로크 회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루벤스가 전성기에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벤스의 작품은 경매에 나올 때마다 수백만 유로에 거래된다.

지난 2023년 1월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연합뉴스

는 루벤스의 1609년 작인 ‘살로메에게 바친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무려 2700만 달러(약 390억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